

許筠이 도입한 李贄 저서

朴 現 圭*

<目 次>

- | | |
|----------------------------|-------------------|
| 一. 서론 | 三. 許筠의 <讀李氏焚書> 분석 |
| 二. 許筠의 <藏書> 구득과
金中淸의 반응 | 四. 결론 |

一. 서론

조선 학자들은 전반적으로 유학 사상을 일생의 신념으로 삼고 경전 탐독에 치우치곤 했지만, 때로는 반전통적인 사상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새로운 사유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과 서적을 접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명말 양명좌파를 대표하는 이지의 학문과 서적이었다. 李家源은 일찍이 許筠(1569~1618)을 가리켜 조선의 이지라고 불렀다. 이 두 사람의 사상과 행위가 서로 흡사했다. 이지가 분명히 양명좌파였다면, 허균은 徐敬德, 李滉의 좌파로 봐야 한다.¹⁾ 오늘날 국내 학계는 허균의 학문과 사유를 분석하면서 이지와 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李贄(1527~1602)는 처음에 林載贄라고 불렀다 그의 조상 성은 원래 李였으나, 6대조 李駕가 색목인 여종과 결혼하자 친족들로부터 배척받아 성을 林으로 바꾸었다. 가정 21년(1542) 이지가 府學에 입학하고 나서 일

* 順天鄉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教授

1) 李家源 저·허경진 역, 《儒教叛徒 許筠》, 연세대학교출판부, 서울, 2002.2.

마 후 원래 성으로 고쳐 사용했다. 가정 45년(1566)에 穆宗(朱載厚)이 등극하자 피휘법에 따라 載자를 빼냈다. 자는 宏甫이다. 호 바꾸기를 즐겨하여 죽을 때까지 무려 47개의 별호를 남겼다. 자칭 溫陵居士, 百泉居士, 卓吾老人, 李老子 등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龍湖叟, 禿翁, 李溫陵, 李上人 등으로 불렀다. 晉江(현 복건 泉州) 사람이다.

명나라 말기는 국정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사회 구조의 급속 변화로 인하여 모든 현상이 마치 폭발 직전의 빅뱅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당시 사상가들은 진지한 삶의 태도와 선각적인 사고 의식으로 현실의 허구와 모순에 맞서 새로운 세계로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었다. 이지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전통적인 사상과 학문을 혁신적인 사고방식으로 일거에 바꾸려 도모했었다.

그렇다면 허균은 이지의 저서를 과연 언제 어떻게 입수했을까? 허균은 이지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고, 수 차례나 명나라 사신들을 접견하거나 직접 사신이 되어 명나라에 가서 많은 서적들을 구득해왔다. 필자는 이 두 사람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서적 구득과 열독은 한 사람의 학문 세계와 사유 체계를 밝히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되곤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 작업의 일환으로 허균이 이지의 저서를 언제 어떻게 접촉했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려 한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이지의 사상을 대표하는 《藏書》와 《焚書》를 입수하는 과정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二. 許筠의 《藏書》 구득과 金中淸의 반응

광해군 6년(1614)에 조선 조정은 천추사 겸 사은사를 명나라로 보냈다. 정사는 허균이고, 서장관은 金中淸이다. 조천 기간은 광해군 6년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이다. 허균은 중국에 간 다른 조선 사신처럼 조천 기간에

발생된 사건과 견문 소감을 적은 행록을 남겼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현재 전하지는 않는다. 다만 다행인 점은 김중칭이 기술한 《朝天錄》이 남아 있다. 《조천록》에는 김중칭이 지척거리에서 허균의 행적을 바라본 기록들을 남겨 놓아 허균 행적 조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²⁾ 《조천록》은 원래 따로 독립된 서책이었으나, 김중칭의 후손들이 《苟全先生文集》을 편찬할 때 문집의 별집으로 편입시켰다.

《조천록》 광해군 6년 8월 20일(경자)조를 보면 이날 김중칭이 허균을 통해 《장서》를 보게 된 경위와 소감, 이지의 약력을 적어 놓았다. 《장서》 열독 경위와 소감은 아래에서 따로 자세히 언급하고, 여기에서는 그가 이지의 약력에 대해 기술해 놓은 부분만 전재한다.

夷考其人, 始以山僧有名, 五十後冠顯, 中進士, 知府, 遞不復仕. 其學始爲佛, 中爲仙, 終爲陸, 能文章言語, 惑誣一世, 其徒數千人, 散處西南, 以攻朱學爲事云.

그 사람을 공정하게 논하여 보면, 처음에 화상으로 이름이 있었고, 50세 이후에 머리에 갓을 쓰고 진사시에 급제하여 知府가 되었다가 체직되고는 다시 벼슬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학문도 처음에는 불교를, 중간에는 도선을, 나중에는 陸學을 하였다. 문장과 언어에 능통했으며, 한 세대를 미혹시키고 속였다. 그 무리 수천 명은 서남쪽에 흩어져 살면서 주자학을 공격하는 것으로 일을 삼는다고 하였다.

이 문장은 현존 조선 문헌 중 이지 약력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겠다. 김중칭이 기술한 이지 약력은 전반적으로 정확한 편이나 일부 사안에 대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지는 26세(가정 31년; 1552)에 향시 舉人에 올랐으며, 27세(가정 32년; 1553)북경 회시에 나갔으나 낙방했다. 30세(가정 35년; 1556)에 다시 한번 회시에 나갔으나 낙방하고, 하남 輝縣 敎諭가 되었다. 33세(가정 38년; 1559)에 南京 國子監博士가 되었고 38세

2) 박현규, <金中淸의 《朝天錄》과 부정적인 許筠 모습>, 溯上古典硏究會 2005년 하계 학술발표회, 서울, 2005.06.18, 쪽10-19.

(가정 43년; 1564)에 北京 國子監博士가 되었다. 41세(음경 원년; 1567)에 禮部主事가 되었고, 44세(음경 4년; 1570)에 南京 刑部員外郎에 되었다. 51세(만력 5년; 1577)에 姚安知府가 발령을 받아 부임했으며, 54세(만력 8년; 1580)에 임기 만료 후 더 이상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젊었을 때는 과거 응시와 유학 탐구에 나섰으며, 41세(음경 원년 1567) 경에 徐用檢을 좇아 불교와 도학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양명학 서적에도 많은 관심을 쏟았다. 그 후 재가화상처럼 불교에 빠져들었으며, 실제 삭발한 시기는 62세(만력 16년; 1588)이다. 58세(만력 12년; 1584)에 호북 麻城에서 유학자 耿定向과 사상 논쟁이 촉발되어 훗날 탄핵의 풍랑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당시 마성에는 이지를 따르는 우인들이 많았다.

이지의 《장서》는 광해군 6년에 허균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구전집》 권1 <上使得李氏《莊書》(《藏書》의 오기)一部以示余, 感題二律> 서문에서:

上使得李氏《莊書》一部以爲奇, 示余其書. 自做題目, 勒諸前代君臣其是非予奪, 無不徇己偏見, 以荀卿爲德業儒臣之首, 屈我孟聖於樂克·馬融·鄭玄之列, 明道先生僅參其末, 與陸九淵並肩, 若伊川·晦庵兩夫子則又下於申屠嘉·蕭望之, 稱之以行業, 肆加升黜, 少無忌憚.

余見而太駭, 曰: 此等書寧火之, 不可近. 居數日, 偶閱《經書實用編》馮琦《正學疏》, 有曰: 皇上頃納張給事言, 正李贄誣世之罪, 悉焚其書云.

所謂贄乃作《莊書》者, 倡爲異學, 率其徒數千, 日以攻朱爲事, 而卒爲公論所彈, 伏罪於聖明之下. 至以妖談怪筆多少, 梓板一炬而盡燒. 猗歟, 大朝之有君有臣也. 感題二律, 既傷之, 又快之; 快之之中, 又有傷焉. 傷哉, 傷哉. 其誰知之.

상사가 李氏 《莊書》 1부를 얻어다 기이하게 여기면서 나에게 보여 주었다. (이지는) 스스로 제목을 붙여 억지로 전대 군신의 옳고 그름과 주고 빼앗음에 대해 자신의 편벽된 견해를 가하지 않음이 없었다. 荀卿(荀子)을 德業儒臣의 첫째로 삼고, 우리 孟聖(孟子)을 낮추어 樂正克·馬融·鄭玄의 대열에 낮추어 놓았다. 明道先生(程顥)은 겨우 그 대열의 끝에 陸九淵과 함께 나란히 두었다. 伊川(程頤)과 晦庵(朱熹) 두 부자 같은 이는 또 申屠嘉,

蕭望之의 아래에다 두고, 行業儒臣으로 일컬으면서 멋대로 올리고 깎아 내림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내가 보고 크게 놀라 말하기를 “이런 종류의 책은 차라리 불에다 태워 버려야 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며칠 있다가 우연히 《經書實用編》에 馮琦가 올린 <正學疏>를 보니, 거기에 쓰여있기를 “황상께서 지난번에 張給事(張問達)의 말을 받아들여 이지가 세상을 속인 죄를 바로 잡고 그 책을 모두 태워 버렸다”고 했다.

이른바 이지는 《藏書》를 지은 자로서 이단의 학설을 주창하여 그를 따르는 무리 수천 명을 데리고 날마다 주회를 공격하는 것으로 일을 삼다가 마침내 공론의 탄핵을 받아 천자의 영명함 아래에서 죄를 받았다. 요사스러운 말과 괴상한 글 다수와 책판이 일거에 모두 불태워졌다. 아아, 대국에는 임금과 신하가 있도다. 그 느낌을 두 편의 律詩로 제하였다. 속이 상했다가 다시 상쾌하기도 하며, 상쾌한 가운데 다시 속상함이 있다. 속상하다, 속상하다, 그 누가 이를 알리오.

이 글에는 김중청이 《장서》를 보게된 경위와 소감에 대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上使는 허균을 지칭하고, 《莊書》는 《藏書》의 오기이다. 《조천록》 광해군 6년 8월 20일조에 김중청이 우연히 이씨 《藏書》를 보았다고 했다.³⁾ 이 글에서 김중청은 허균이 《장서》를 구해 자신에게 보여 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허균은 이번 천주 사행과 이듬해 진주 사행 동안 근 4천 권이나 되는 많은 중국 서책을 구득했는데, 《장서》도 그 중의 하나이다. 허균이 이 책을 구득한 장소는 연경(현 북경)으로 보인다.

《장서》는 만력 16년(1588) 초고가 저술된 이래 여러 번의 수정과 증보를 거쳤다. 만력 18년(1590)에 마성에서 초고의 일부분 문장이 간행되었고, 만력 25년(1597)에 증보 초고가 완성되었다. 만력 27년(1599)에 그의 친우 焦竑의 주도 하에 南京에서 각판되었다. 《장서》는 <世紀> 8권 <列傳> 60권 등 총 68권이며, 전국에서 원나라까지 약 8백 명의 인물이 기술되어있다. 이 책자는 인물 평가에 있어 반전통적 사상에서 출발하여

3) 《朝天錄》 광해군 6년 8월 20일조 「偶見李氏《藏書》，李氏，所謂卓吾先生名贊者也。」

정주학의 일반적인 가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또한 역사의 발전성을 강조하며 자본주의의 초보 의식을 가미해 놓았다. 초황은 이 책자의 서문을 적으면서 이지의 인품이 높고, 저술이 많으며, 또한 이 책자를 감추려 해도 그 이름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해질 것이라고 했다.⁴⁾

허균이 천주사로 연경을 방문한 시기는 광해군 6년(1614)이다. 이때는 이지의 저서가 여전히 판금을 당하고 있을 시기였다. 연경은 명나라 수도로서 조정의 기강이 가장 엄하게 통제되고 있는 곳이고, 또한 이지를 탄핵한 조정 인물들이 머물고 있던 곳이다. 그렇다면 허균이 어떻게 연경에서 이지의 《장서》를 구입할 수 있었을까? 허균이 《장서》를 어떻게 구득했는지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아마도 그는 암암리에 이 책자를 구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지의 저서들은 비록 만력 30년(1602)에 장문달의 주청으로 인하여 판금 조치를 당했지만, 당대 선각 있는 사대부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돌아가며 열독하고 있었다. 판금 이후에도 초황을 비롯한 이지의 우인들이 이지를 그리며 문장을 짓고 그의 저서들을 계속 간행했다. 이와 같이 허균이 연경에 머물고 있던 당시에 이지의 저서가 시중이나 사대부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모르나 이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천계 5년(1625)에 이지의 저서는 御使 王雅量의 주청에 의해 다시 한번 판금 조치를 당했다.

허균이 《장서》를 구득하고 난 소감은 어떠했을까? 《구전집》에는 허균이 《장서》를 보고 일반 책자의 내용과 다르다는 뜻으로 ‘축’, 즉 기이하다는 한 글자만 남기고 있다. 여기에서 허균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장서》에 내포되어 있는 이지의 사유는 유교주의와 정통 사관을 반대하고, 역사의 발전성을 강조하며 자본주의의 초보 의식이 가미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지의 사유 방식은 기존 사고를 뒤집는 혁신적인 사상을 갖추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허균 또한 시대에 앞서서 혁신적인 사상을 갖춘 인물이므로 이지와 서로 상통한 점이

4) 《藏書》 焦竑 <李氏藏書序>: 「卓吾先生隱矣, 而其人物之高, 著述之富, 如珠玉然, 山暉川媚, 有不得而自揜抑者, 蓋姓名赫赫盈海內矣。」

있다고 하겠다.

한편 김종청은 《장서》를 보고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장서》가 맹자부터 정주로 이어지는 전통 유학관과 인물들을 부정하고 있다며 크게 놀랐다. 그는 이러한 책들은 차라리 불태워야 하며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며칠 후 김종청은 馮應京의 《皇明經書實用編》에 기술된 馮琦의 상소문을 보고, 명 황제가 張問達의 말을 받아들여 이지의를 저서물을 태워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잘된 일이라고 안도의 숨을 쉬었다. 이때 그의 마음은 착잡했다. 속이 상했다가 다시 상쾌하기도 하며 또 상쾌한 가운데 다시 속상해하는 마음을 토로했다. 그는 이지주의 《장서》가 황명에 의해 불태워졌다는 사실에 대해 기분이 좋아졌다가도, 이와 같은 책자가 세상에 출현했다는 사실에 대해 기분이 울적했다.

김종청은 한마디로 조선의 전통 유학자이다. 그는 일찍이 朴承任과 趙穆으로부터 학문을 배웠고, 뒷날 鄭述로부터 성리학의 정수를 이어받았다. 그 후 일생동안 성현의 가르침을 받들어 성리학 연구와 실행을 자기 소임으로 삼았다. 그의 사후에 영남 유림들이 그를 滎泉書院에 제향하였다. 그가 이지주의 《장서》를 보고 극단적인 반응을 한 것은 매우 당연한 처사였다. 김종청이 아니라 다른 조선 유학자였더라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장문달이 올린 상소문을 보면 이지를 탄핵하고자 한 강경한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

이지는 마성에서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부녀자들을 유혹한 인물이며, 그의 저서는 널리 유포되어 인심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지가 머물고 있는 通州는 연경으로부터 불과 40리밖에 떨어져있지 않는데, 만약 이지가 입경이라도 하면 마성의 경우처럼 이단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지를 체포하여 원적지로 압송하고 그의 저서를 모두 불태우라는 조치를 내려주기를 주청했다.

명 신종은 장문달의 상소문을 보고 즉시 다음과 같이 비준했다.

이지는 도의 혼란을 주창하여 세상을 현혹시키고 인민들을 속인다면 즉

시 廠衛五城에게 통주로 보내어 이지를 체포하고 저서들을 금서로 지정하고 불태우라고 명을 내렸다.⁵⁾

이날 장문달이 상소문을 올리고 황제가 즉시 비준하고, 얼마 후 이지를 잡아 가두는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던 점으로 보아 당시 명 조정이 이 사건을 매우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

며칠 후 풍기는 신종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황상께서 장문달의 말을 받아들여 이지의 죄를 묻고 저서 유통을 금하는 것이 사악을 물리치고 정의를 바로잡는 위대한 행동이라 치켜세우면서, 공맹을 등지고 정주를 헐뜯는 모든 행동을 금하고 저서들을 태우라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신종은 풍기의 상소문을 보고 흡족해하며 세상 교화에 도움이 될 유학자를 구하도록 명을 내렸다. 《황명경서실용편》의 편자 풍응경도 일전에 이지 탄핵에 앞장 선 인물이다. 만력 28년(1600)에 그는 마성 관료와 함께 이지를 법으로 다스리고 용호 사찰을 허무는 일을 주도했다.

三. 許筠의 <讀李氏焚書> 분석

허균은 지난 천추사 정사에 이어 동지 겸 진주부사가 되어 다시 한번 명나라 땅을 밟게 된다. 그는 이번 조천 기간 동안에 《乙丙朝天錄》이라는 조천록을 남겼다. 이 책자에는 광해군 7년(1615) 9월에 압록강을 건너 요동 땅을 밟은 시점부터 이듬해 3월 한반도로 귀국하기까지 지은 시 383수가 수록되어 있다.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이 책자가 발견됨에 따라 앞으로 허균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진다.⁶⁾

《을병조천록》에는 허균이 이지의 《焚書》를 읽고 느낀 <讀李氏焚書> 3수를 남겼다. <讀李氏焚書>는 허균의 조천 일정과 시 수록 순서로

5) 《明神宗實錄》 권369, 만력 30년 윤2월 22일(을묘) 참조

6) 최강현, <교산 허균공은 하느님 신자였다. …… “을병조천록”에 투영된 인물론>, 제7회 허균·허난설헌 한중일 국제학술세미나 허균·허난설헌선양사업회, 2005.9.10, 쪽5-25.

보아 광해군 7년 10월에 통주에서 지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7) 《분서》는 이지가 우인들과 주고받은 서찰 문답, 책을 읽고 나서 느낀 감상, 평소에 지은 잡다한 글과 시편 등으로 이루어졌다. 만력 18년(1590)에 마성에서 처음 간행되었고, 만력 28년(1600)에 초판본 이후 10년간의 저술이 추가되었다. 오늘날 통행본은 이지 사후에 재편된 책이다. 이 책은 《장서》와 함께 이지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이며 훗날 금서로 지정되었으나 오히려 지식층으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8) 허균이 본 《분서》는 어떤 판본일까? 시기로 보아 만력 18년 초판본 亭州(麻城)刊本과 만력 28년 재판본 陳証聖序刊本 중의 하나로 추정되는데, 현재 허균이 본 실물이 남아 있지 않아 어느 판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음으로 <讀李氏焚書>를 감상해 본다. 제 15에서 :

清朝焚却禿翁文	맑은 아침에 독용 문장을 태워도
其道猶存不盡焚	그 도는 여전히 남아 태워지지 않았도다
彼釋此儒同一悟	불과 유는 깨우치기는 하나인데
世間橫議自紛紛	세상에 異論이 분분하구나

이 시는 이지 문장의 영원성과 세간의 논란에 대해 읊었다. 禿翁은 이지가 삭발하고 불교에 귀의한 이후 친우들이 불렀던 별호이다. 이지의 저서는 간행 보급과 금서 지정의 경계를 넘나드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다. 우리는 이지가 지은 대표적인 저서의 이름만 봐도 일반 저서와 달리 비범하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 《분서》는 이 책을 태우라는 제목을 가졌고, 《장서》는 이 책을 감추라는 제목을 가졌다. 이지 자신도 본인의 저서가 세상에 분란을 일으킬 것이고, 또한 후세에 공정한 평가를 기다리

7) 《을병조전록》에 수록된 시는 조선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讀李氏焚書> 앞쪽에 <通州曉起>와 <又得四絕>이 수록되어 있고, <讀李氏焚書> 뒤쪽에 <題袁中郎酒評後>와 <留通州偶作>이 수록되어 있다

8) 朱國禎 《湧幢小品》 권16 <李卓吾>: 「全不讀四書本經, 而李氏《藏書》·《焚書》, 人狹一冊以爲奇書。」

겠다면 책명에 강한 의미를 부여했다.⁹⁾

《분서》와 《장서》가 세상에 나오자, 많은 이들로부터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았다. 당시 전통 유학자와 위정자들은 이지의 책자를 없애버리려 했다. 명 조정에서 이지의 책자를 두 차례나 금서로 지정하고 태우라는 명을 내렸지만, 《분서》는 다 태우지 못하고, 《장서》는 다 감추지 못하여 오히려 훗날 문단에 널리 보급되었다. 초황은 《焚書》 서문에서 이지의 저서를 불사르는 것은 마치 불에 타지 않은 火浣布처럼 불태워지지 않고 더욱 광범위하게 전파된다고 말했다.¹⁰⁾ 그래서 허균은 이 시의 전반부에서 당국에서 이지 문장을 태워도 그 문장 속에 담겨 있는 도는 태워지지 않고 영원하다고 했다.

허균과 이지는 모두 불교·도교와 유교의 깨우침이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불교·도교와 유교에 나타난 각론 부분은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본래 도를 깨우친다는 종지는 일치한다. 이들의 사유 체계는 당시 전해지는 모든 사상을 하나로 묶어 서로 통한다는 통합 인식이 강했다. 이지는 불교와 도교의 종지가 유교의 종지와 본래 하나라는 三教歸儒說을 제창했고,¹¹⁾ 또 여기에도 선진 제자백가 사상과 양명학 사상, 외래 종교인 기독교와 회교 사상과도 상호 소통한다고 보고 있었다. 허균의 일대기를 보면 유자의 삶과 행동을 하면서 불교와 도교와의 만남이 거리낌없이 이루어졌고, 또 여기에도 양명학, 천주교 등 여타 사상과의 소통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이 이지와 상통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당시 유학자와 위정자는 이지와 허균의 통합 사유를 모르고 그릇된 사고 방식이라며 떠들어댔다. 명나라의 전통 유학자들은 이지의 사상과 행위에 대해 비난했고, 조선의 전통 유학자들도 허균의 사상과 행위에 대해 비난

9) 《분서》 이지 <自序>: 「一曰『藏書』, 上下數千年是非, 未易肉眼視也, 故欲藏之, 言當藏於山中以待後世子雲也, 一曰『焚書』, 則答知已書問 所言頗切近世學者膏?, 既中其痼疾, 則必欲殺我矣, 故欲焚之, 言當焚而棄之, 不可留也。」

10) 焦竑 <李氏焚書序>: 「今焚後而宏甫之傳乃愈廣, 然則此書之焚, 其布之有火浣哉。」

11) 《續焚書》 권2 <三教歸儒說>: 「儒釋道之學, 一也, 以其初皆期於聞道也。」

했다. 이러한 점도 상통한다고 하겠다. 그래서 허균은 이 시의 후단에서 불교와 유교에서 추구하는 종지는 같으나,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異論이 분분하다고 했다.

〈讀李氏焚書〉 제2수에서:

丘侯待我禮如賓	丘侯가 나를 빈객으로 예우하니
麟鳳高標快親親	기린과 봉새 높은 인덕을 친히 보아 상쾌하도다
晚讀卓吾人物論	만년에 탁오의 인물론을 읽어보니
始知先作卷中人	먼저 책 속에 기술된 인물임을 비로소 알았도다

이 시는 丘坦과의 교유 사실과 《분서》 속의 구탄이란 인물에 대해 읊었다. 卓吾는 이지의 자호이고, 丘侯는 丘坦을 지칭한다. 구탄은 일명 坦之이라고 불렸다. 자는 坦之이고, 호는 長孺이며 호북 마성 사람이다 허균과 구탄과의 만남은 선조 35년(1602)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해 명 조정은 황태자 책봉건으로 顧天垓과 崔廷健을 사신으로 삼아 조선에 보냈다. 구탄은 이번 명 사행의 종사관이 되어 함께 한반도에 들어왔다. 한편 조선에서는 李好閔을 명 사신 일행을 맞이할 원접사로 삼았는데, 허균이 종사관으로 따라 나섰다. 구탄은 한반도에 머물고 있을 동안 허균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을 것으로 보인다.

광해군 6년에 허균은 천추사 정사로 명나라 연경으로 향했다. 당시 구탄은 遼東遊擊을 맡고 있었다. 구탄과 허균의 재회 과정은 서장관 김중청이 적은 글에서 잘 나타나 있다. 허균은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기 전 구탄과 사전 연락을 취했고, 구탄도 허균 일행에게 압록강의 배 안에서 영접 주연을 베풀겠다는 계첩을 보내왔다. 구탄이 허균에게 보낸 계첩에서 비록 외교 관례에는 없지만, 하늘가 먼 곳에서 우연히 옛 친우를 만나는 일은 매우 귀중하오니 예법에 구애받지 말고 사복을 입고 만나자고 했다.¹²⁾ 허균과 함께 초청 받은 김중청은 구탄에게 보낸 글에서 일찍이 허

12) 《조천록》 광해군 5월 30일조: 「丘游擊遣答應官夜不收二人, 揭帖于上使及我.

균을 통해 구탄의 명성을 널리 들었고, 이번에 자신들을 환대해 주는 것에 대해 고맙다고 했다.¹³⁾ 구탄이 이들에게 보낸 계첩을 보면 마치 친한 친구에게 보낸 서찰처럼 “蛟翁柱下”라고 허균의 호를 적었고,¹⁴⁾ 또 상대방을 先生, 閣下라고 칭하며 자신의 성명을 낮추고 머리를 조아린다 적었다.¹⁵⁾

우리는 이것을 통해 허균과 구탄의 교유가 매우 막역했음을 알 수 있다. 구탄은 옛 친우 허균이 사신으로 오자 외교 관례를 깨뜨리며 후한 영접을 했다. 그는 당시 외교 사신의 예법이 친우들과의 만남을 막지 못할 것이고,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사복을 입고 만나자고 했다. 이에 반해 김종청은 충직한 전통 유학자 출신답게 임금의 신하는 사사로이 외국 사신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예법을 들면서 허균이 구탄과 사사로이 만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몇 번이고 못마땅히 여겼다.¹⁶⁾

광해군 7년에 허균은 또 다시 조천사가 되어 다시 한 번 중국 땅을 밟게 되었다. 그는 이번에도 옛 친우 구탄을 만나 우정을 다지려고 하였으나, 구탄이 마침 군영 일로 遼陽에 가있는 바람에 만나지 못했다. 그는 지난날 구탄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후대를 생각하며 시를 남겼다.¹⁷⁾ 얼마 후 그는 구탄의 고상한 모습을 묘사하는 시를 남겼다. <讀李氏焚書> 제2수의 전반부에서 그는 구탄을 기린과 봉새처럼 높은 인덕을 가진 인물로 묘

乃於二日渡江時遊酌于舟中預邀者也。揭使曰 弊營椽屬云 貴國使臣向來無相見禮。於乎 禮豈爲我輩設耶? 異地故人 天涯偶合 又豈可常禮拘耶? 朔之二日 以尊候于舟中上 願以燕居私服相見。同事金爺 不佞亦折簡邀之 幸轉謂之 簡曰 朔二日 舟中小酌 奉候高軒 故以先告之執事者。」

13) <구전집> 권4 <回揭丘遊擊坦>: 「會因許君聞大爺聲華 仰之如高山 擬過營下 謹以姓名爲贊而退。不意 今者先辱華尺 寵有招命 標題先生閣下等語 自屈其姓名 終之以頓首 有若知分有宿者。」

14) <조천록> 광해군 6년 6월 1일 주: 「遊擊揭帖書蛟翁柱下。」

15) <구전집> 권4 <回揭丘遊擊坦>: 「今者先辱華尺 寵有招命 標題先生閣下等語 自屈其姓名 終之以頓首 有若知分有宿者。」

16) <조천록> 광해군 6년 5월 21일조, 22일조, 30일조 참조.

17) <을병조천록> <七長亭> 자주: 「客歲過江之日 丘遊戎邀宴望江寺 賦詩相贈 今年又明使价 再涉鴨江 則丘公以試武舉蒙臺檄 往遼陽 不獲屬舊會 感而賦之。」

사했고, <題袁中郎酒評後>에서도 구탄이 고상하게 술을 마시는 모습을 그렸다.¹⁸⁾

허균은 이번 사행에서 《분서》를 접해보니 이 책 속에 구탄에 관한 기록들이 수록되어있음을 비로소 알았다. 구탄과 이지는 지우이다. 구탄(1564~?)은 이지보다 37살이나 적지만, 이지는 구탄을 자신을 알아주는 지우로 삼았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만력 12년(1588)에 이지가 마성 용담으로 거처를 옮겨가 새로운 마성 친우들과 교류하였다. 구탄과 이지의 만남은 대략 이 무렵일 것이다. 이지는 구탄을 한번 보자마자 평생 사길 지우로 삼았고, 더 이상의 상대방에 대한 시험은 없었다.¹⁹⁾ 이때 이들은 빗장을 걸고 문을 잠근 채 날마다 독서에 전념했다.²⁰⁾

만력 21년(1593)에 이지가 심한 질병에 걸려 앓아 눕자 구탄이 이번에 가더니 오지 않는다며 그리워하는 마음을 얼굴에 나타내며 빗방울 같은 눈물을 줄줄 흘렸다.²¹⁾ 곁에서 지켜보던 懷林화상은 그를 달래도 달랠 수가 없었다. 이지는 구탄의 생일 때면 자주 축하하는 시를 보냈다. 한 시에서 구탄의 생일을 차려주니 더 이상 젊은이라고 칠 수 없고, 인간사 백년은 살기 쉬워도 세상에 그대 같은 이를 만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읊었다.²²⁾ 그는 구탄의 인물됨을 다음과 같이 논한 적이 있다. 구탄이 만약 고향 마성에 계속 살았더라면 남들로부터 후레자식이라고 지탄을 받았을 것이고, 자기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몸뚱이도 끝까지 돌보지 않아 지극히 쓸모 없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서 결코 쉽게 만날 수 없는

18) 《을병조친록》 <題袁中郎酒評後>: 「曾觀丘侯把酒杯, 半酣高詠氣雄哉。」

19) 《분서》 권4 <人物>: 「如丘長孺·周友山·梅衡湘者, 因一見而遂定終身之交, 不得再試也。」

20) 袁中道 <李溫陵傳>: 「公遂至麻城龍潭湖上, 與僧無念·周友山·丘坦之·楊定見聚, 閉門下鍵, 日以讀書爲事。」

21) 《분서》 권4 <寒燈小話>: 「九月十三夜, 大人患氣急, 獨坐更深, 向某輩言曰: 丘坦之此去不來矣. 言未竟, 淚如雨下。」

22) 《분서》 권6 <丘長孺生日>: 「似君初度日, 不敢少年看, 百歲人間易, 逢君世上難。」

기린·봉황·서란·지초같은 인물이라고 했다.²³⁾

구탄은 평소 이지를 스승처럼 모셨다. 한번은 구탄이 이지가 많이 늙었다고 걱정하였으며,²⁴⁾ 훗날 이지가 자결하자 매우 슬퍼했다. 만력 41년(1613) 봄에 그는 汪可受의 명을 따라 통주에 와서 이지의 묘비석에 丹書를 했다. 이때 <奉汪大中丞命爲卓師墓碑書丹有碑> 4수를 남겼다. 통주는 이지가 묻힌 장소이다.²⁵⁾ 구탄은 이지 묘소 제례 후 요동 임소로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해 여름에 구탄은 압록강가에서 허균과 만나 옛 우정을 다시 회포했다. 이때 김중칭이 외교 예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구탄은 예법이 어찌 우리들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냐며 반문하고, 먼 지역에서 옛 친우를 만나는 것이 또한 일상 예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며 사복을 입고 만나자 했다. 여기에서 구탄이 이지의 사교처럼 상투적인 예법에 구애받지 말고 가식적인 가면을 벗고자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허균은 통주에 있는 동안 《분서》를 읽었다. 허균은 《분서》를 어떻게 구했을까? 허균이 이 시에서 구탄과의 우정 관계를 피력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허균이 통주에서 구탄 관계인을 통해 구득했을 가능성이 있다. 통주는 이지와 구탄에게 모두 각별한 곳이고 이지가 죽을 때 끝까지 모셨던 馬經綸의 집이 있는 곳이다. 만력 33년

23) 《분서》 권4 <八物>: 「若丘長孺之在麻城, 則麻城諸俗惡輩直視之爲敗家之子矣. …… 若丘長孺, 雖無益於世, 然不可不謂之麒麟·鳳凰·瑞蘭·芝草也. 據長孺之爲人, 非但父母兄弟靠不得, 雖至痛之妻兒亦靠他不得也. 非但妻兒靠不得, 雖自己之身亦終靠他不得, 其爲無用極矣. 然其人固上帝之所篤生, 未易材者也. 觀其不可得而親疎敬慢也. 是豈尋常等倫可比耶? 故余每以鳳凰·芝蘭擬之, 非過也.」

24) 《분서》 권2 <附衡湘答書>: 「丘長孺書來, 云: 翁有老態, 令人茫然.」

25) 이지의 묘소는 오늘날 북경시 通州區 西海子公園 안 북쪽에 있다. 그러나 그의 묘소와 묘비석은 마치 그가 생전에 받은 탄핵처럼 이리저리 옮겨지고 쪼개지는 수난을 겪었다. 민국 초에 이지 묘비석은 세 동강으로 단절되었고, 1926년에 일본학자들이 이것을 일본으로 옮겨가다가 발각되었다. 1953년에 북경에서 이곳에 결핵연구소를 세우면서 묘소를 大悲林村 남쪽으로 이장했고, 1966년에 묘비석이 다시 무너졌다. 1974년에 발발한 문화대혁명으로 묘비석은 땅속으로 매장되는 운명을 맞이했다가, 1983년에 오늘날 장소로 옮겨 보존되고 있다.

(1605)에 구탄은 마경륜이 죽자 조시를 지은 적이 있다.²⁶⁾ 허균이 통주에서 《분서》를 읽었고, 또 지난 천주 사행과 달리 통주에서 적어도 5월 동안 머물렀다.²⁷⁾ 이때 허균은 <題袁中郎酒評後>를 지었다. 작품 속의 袁宏道는 이지와 매우 각별한 지인으로 공안파 문학 사상을 주창했다.²⁸⁾ 이것으로 보아 허균이 구탄 또는 구탄 우인을 통해 《분서》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다분하고, 또 허균이 통주에 며칠 머무는 동안에 혹시 이지의 묘소를 찾았을지도 모른다.

<讀李氏焚書> 제3수에서:

老子先知卓老名	노자는 卓老 이름을 먼저 알았고
欲將禪悅了平生	장차 선으로 평생을 즐기려고 한다
書成縱未遭秦火	저술은 秦火를 만나지 않았고
三得臺榭亦快情	세 번 탄핵받아도 또한 마음이 상쾌했다.

이 시는 이지의 道·佛 사상과 탄핵 과정에 대해 읊었다. 卓老는 이지의 자호이다. 이지는 연경에서 관직 생활하면서 틈틈이 徐用檢을 좇아 불학과 도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만력 2년(1574)에 蘇轍의 《老子解》를 남경에서 간행하고 그 서문을 지었다. 그는 노자가 추구하고 있는 尙眞 사상을 받아들여 자연에 순응하고자 했다. 이지는 불교와의 연분이 매우 깊다. 그는 한동안 사찰에 거주하면서 재가회상으로 지내다가, 만력 16년(1588)에 머리를 깎고 불교에 귀의했다. 《분서》에는 불학의 이치를 탐구했던 글이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를 불교에 귀의한 사람으로 보기에선 어려운 점이 많다. 삭발 동기만 보더라도 불제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현실 문제를 돌파하고 탈속세적인 내면 수양의 방편으로 활용했다.²⁹⁾ 그렇지만 그는 불학 연구와 참선 수양을 통하여 해탈의 깨달음

26) 《畿輔通志》 권166 <馬經綸墓> 참조

27) 《을병조친록》 <留通州偶作>: 「僑得謝家留五夜」

28) 《분서》 권6 <九日至極樂寺, 聞袁中郎且至, 因喜而賦> 참조

29) 《焚書》 권2 <與曾繼泉> 참조.

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허균은 이 시의 전반부에서 이지가 노자의 사
고와 통했고, 불교를 좋아했다는 말을 남겼다

이지의 저서는 진시황의 분서갱유처럼 커다란 진통을 겪었다. 당시 위
정자는 위지의 저서를 두 차례나 불태우고 금서로 지정하는 조치를 내렸
다. 그러나 결과는 위정자의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로 나타났다. 이지 저서
는 마치 당국에 의해 철저히 봉쇄되는 운명을 맞이하는 듯 하였으나, 실
제로는 당대와 후대 지식층들이 이를 열독하거나 출판하여 오히려 더욱
널리 유포되었다.

이지는 유학자와 사상 충돌로 인하여 관청으로부터 탄핵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일생동안 크게 세 차례 탄핵을 받았다. 첫 번째 탄핵은 만력
23년(1595)에 일어났다. 分巡武昌道 史旌賢이 黃州 순시 과정에서 이지가
마성에서 풍속과 교화를 무너뜨린다고 비난하자, 마성의 지방관들은 龍湖
芝佛院을 철거하고 이지를 원적지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탄핵했다. 이지는
이 말을 전해 듣고 법에 의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두 번째 탄핵은 만력 28년(1600)에 일어났다. 湖廣按察使僉事 풍응경이
이지를 법으로 다스리고 용호 사찰을 허물자고 공언하자, 마성의 유학자
들도 이지는 음란을 조장하는 요망한 중이라며 마성에서 추방하자고 선동
했다. 마성 관료들은 이지의 藏骨塔과 용호 지불원을 파괴시켰고, 아울러
이지를 멀리 추방시키고자 체포하려 갔다. 이때 楊定見은 탄핵 소식을 듣
고 이지를 숨기고 다음날 그를 商城縣의 黃蘗山으로 대피시켰다.

세 번째 탄핵은 만력 29년(1602)에 일어났다. 禮科給事中 장문달이 재
상 沈一貫의 뜻을 받들어 이지를 탄핵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그가 내세운
이지의 죄명은 전통 사관의 파괴, 공자와 유학 비방, 부녀자 유혹, 사대부
의 불문 귀속 등이다. 명 신종은 장문달의 상소문을 받아보고, 그 즉시 이
지를 흑세무민의 죄인으로 판결하고 이지를 잡아들이고 저서 유통을 금하
라는 명을 내렸다.

이지는 관부에서 그를 체포하려 온다는 소식을 듣고 피신하지 않고 오

히려 문짜을 때어 이들을 기다리며 나는 죄인이니 빨리 잡아가라면서 태연하게 맞이했고, 체포된 후 심문을 받을 때에도 죄가 없다며 꾀꼬하게 대답했다. 또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을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여 자결을 했다. 허균은 이 시의 후반부에서 이지가 탄핵받는 과정과 탄핵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지의 마음을 적고 있다.

허균이 편찬한 《閑情錄》에 이지의 《분서》 한 조항을 전재했다는 기록이 있다. 《한정록》은 허균이 훗날 퇴거하는 날이 오면 한가롭게 정을 나누며 은일 생활을 하겠다는 마음에서 출발하여 전인 서적 중 관련 자료를 뽑아 엮은 책자이다. 초판본 《한정록》은 광해군 2년(1610)에 만들어졌고, 오늘날 전해오는 재판본 《한정록》은 광해군 10년(1618)에 초판본 《한정록》에다가 다시 천주사행과 진주사행에서 구득한 책자 등에서 관련 자료를 뽑아 증보했다. 재판본 《한정록》 권13 <玄賞>에서:

余嘗謂碁能避世, 睡能忘世, 然碁類耦耕之沮溺, 去一不可, 睡同御風之列子, 獨往獨來, 善哉希夷, 深得其解. [李氏焚書, 以上碁]

나는 일찍이 바둑이 세상을 피할 수 있고, 잠은 세상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바둑은 나란히 밭을 가는 長沮·桀溺과 같아서 하나라도 떠나면 할 수 없고, 잠은 바람을 몰고 다니는 列子가 같아서 홀로 가고 오는구나. 좋구나 希夷여. 심히 그 解悟를 얻었구나. [李氏焚書, 이상碁]

상기 문장의 주석에는 이지의 《분서》에서 옮겼다고 명기했다. 국내 학자들이 허균 사상과 왕명좌파와의 영향을 논할 때에 자주 인용되는 문장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상기 문장은 이지의 《분서》에 보이지 않고, 吳從先의 《小窓清紀》 <清事> 중 <爲好事者備攷> 조항에서 그대로 전사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상기 문장에서 앞쪽 두 번째에 수록된 <東坡云予素不解碁> 조항은 《長公外記》에서 나왔다고 명기되었으나, 이 조항도 《小窓清記》 중 <爲好事者備攷> 조항에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본다면 아마도 현존본 《한정록》이 교감학적 문제가

있거나 허균이 오기했을 것으로 판단된다.³⁰⁾

다만 여기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명 만력간본 《소창청기》를 보면 이들 문헌의 출처가 서로 다를 수 있다. <東坡云予素不解碁> 조항은 본문 행의 첫 번째 글자부터 적고 있고, <南岳李岩老> 조항은 이보다 한 격을 낮춘 두 번째 글자부터 적고 있으며, <余嘗謂碁能避世> 조항은 이보다 다시 한 격을 더 낮추어 세 번째 글자부터 적고 있다. 게다가 현존본 《분서》는 이지 사후에 후세 사람들에 의해 재편된 것이고, 《소창청기》 <인용서목>에 이지의 《初潭集》, 《李卓吾諸書》가 들어가 있다. 혹시 허균이 본 《분서》에 현존본과 다른 내용이 수록되어 있거나 《소창청기》가 오늘날 우리가 보지 않는 이지의 저서를 보고 상기 문장을 옮겨 놓은 것은 아닌지 한번쯤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四. 결 론

許筠과 명말 양명좌파와의 관계 설정은 그의 학문 세계와 사유 체계를 밝히는데 중요하다. 그는 일찍부터 불교와 도교, 양명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때때로 문장이나 행동으로 표현해 왔는데, 실제 명말 양명좌파의 서적들을 본격적으로 입수한 것은 그의 말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그 구체적인 사례로 그가 말년에 명말 양명좌파를 대표하는 李贄의 《藏書》와 《焚書》를 입수했던 과정을 살펴보았다. 《장서》와 《분서》는 이지의 사상을 대표하는 책이다.

허균이 《장서》를 구독한 시기는 그가 천주사로 연경에 머물고 있을 동안인 광해군 6년(1614) 8월이다. 이때 허균의 반응은 ‘쑤, 즉 기이하다는 한 글자만 남기고 있는데, 그가 이 책에 대해 상당한 호기심을 발동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허균으로부터 이 책을 받아본 金中淸은 전통

30) 부유섭, <허균이 뽑은 중국 시(1): 『唐絶選刪』>, 문헌과 해석, 2004년 여름호, 쪽243-268.

유학자답게 이 책을 불태워야 한다며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명 전통 유학자와 위정자는 이지를 탄핵하고 저서를 불태워버리는 극단적인 처분을 내렸다.

허균이 《분서》를 열독한 시기는 그가 진주사로 연경의 문턱인 通州에서 머물고 있을 동안인 광해군 7년(1615) 10월이다. 허균의 <讀李氏焚書>는 총 3수이다. 제1수는 이지 문장의 영원성과 세간 논란에 대해 읊었고, 제2수는 丘嫂과의 교유 사실과 《분서》 속의 구탄이란 인물에 대해 읊었으며, 제3수는 이지의 道·佛 사상과 탄핵 과정에 대해 읊었다. 허균은 이 시를 통해 이지의 사유 종지를 잘 파악하고 있었고, 또한 기분이 상쾌하다는 말을 남겼다. 허균이 《분서》를 읽은 장소는 통주이고, 이지가 죽어 묻힌 장소도 통주이다. 허균과 구탄은 오래 전부터 맺어진 막역한 친우이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허균이 구탄 또는 구탄 우인을 통해 《분서》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다분하고, 또 허균이 통주에 며칠 머무는 동안에 혹시 이지의 묘소를 찾았을지도 모르겠다. [燁燄之樂室 乙酉 開天節

< 參考文獻 >

- 許筠 著, 李離和 編, 《許筠全書》, 亞細亞文化社, 서울, 1980.
 許筠 著, 《乙丙朝天錄》, 國立中央圖書館本
 金中淸 著, 《苟全先生文集》, 景仁文化社, 서울, 1997.
 李贄 著, 《李贄全書》, 社會科學院, 북경, 2000(조사)
 李贄 著, 金惠經 譯, 《분서》, 한길사, 서울, 2004.
 林海權 著, 《李贄年譜考略》, 福建人民出版社, 2005, 再版.
 吳從先 編, 《小窓清紀》(《四庫全書存目叢書》), 莊嚴文化, 臺北, 1995.

< 中文提要 >

本論文介紹朝鮮許筠晚年求得代表明末陽明左派的李贄的《藏書》和《焚書》的過程。許筠得到《藏書》，是在他作為千秋使留在燕京期間，也就是光海君6年(1614)8月。那時，他的反應是“奇”。估計這本書引起了他很大的好奇心。相反從他手中拿到這本書的金中清，作為朝鮮傳統的儒學家，聲稱應該燒了這本書。由此可以看出金中清反應極端激烈，而明代傳統儒學家和執政者彈劾李贄并焚燒其書，也是一種極端激烈的處分方式。

許筠熱心閱讀《焚書》時，是在他作為陳奏使停留在通州時，也就是在光海君7年(1615)10月。許筠的《讀李氏焚書》總共有3首，第一首吟咏了李贄文章的永久性以及世間的論難，第2首記錄了他和丘坦的交流情況并吟咏了《焚書》中丘坦這個人物。第3首吟咏了李贄的道佛思想和彈劾過程。許筠通過這些詩很好地把握了李贄的思維宗旨，同時也留下了讓人爽快的話語。許筠讀《焚書》是在通州，李贄所葬之地也是在通州。許筠和丘坦是很好的朋友關係。通過這些情況，可以看出許筠通過與丘坦有關的人士得到《焚書》的可能性很大，同時他在通州停留的幾天是否去過李贄墳前拜祭過也未可知。

주제어 : 許筠, 李贄, 金中清, 陽明左派, 藏書, 焚書